

화염의 바다로 구법행 떠나자

통도사 2013년 화염산림대법회

영축총림 통도사가 한국을 대표하는 선·교·율의 큰 스승들을 모시고 진리를 갈구하는 구법대중들을 위해 화염산림 대법회를 개최한다. 영축총림 통도사(주지 원산)는 12월 3일~31일 경내 설법전에서 진리를 갈구하는 구법 대중들을 위해 화염의 법석을 펼친다.

12월 3일 통도사 방장 원명 대종사의 입재법문을 시작으로 총 29명의 선지식이(화엄경)의 정수를 담은 법문을 펼칠 예정이다.

통도사 화염산림대법회는 신라시대부터 있어 왔지만 현재의 화염산림대법회는 1971년 12월 경봉 스님에 의해 처음 시작되었다.

이 기간 동안은 영남지역은 물론 전국에서 몰려드는 구법 대중들로 인해 화염산림 법회는 문전성시를 이룬다. 화염산림의 어원은 <화엄경>의 화염이고 이는 진리의 법신이고 광명이다. 산림이란 '최절인아산 장양공덕림(叡人我山 長養功德林)에서 파생된 말로 '나다 니다 하는 이만심을 꺾어 없애고 공덕의 숲을 키워 나가는 것'을 말한다.

나를 꺾고 공덕을 쌓아 진리의 세계인 화염의 바다에 도달하는 구법 여정인 통도사 화염산림대법회는 그래서 소중한 고 회유하다. 이 기간 동안 <화엄경> 현답을 비롯해, 세주모염품, 비로자나품,

여래출현품, 입법계품에 이르기까지 화엄경의 진수를 총망라 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다.

이번 법석의 법사진은 한국불교 선·교·율의 대표적 선지식들이다. 영축총림 통도사 방장 원명 대종사의 입재법문으로 시작해 통도사 주지 원산 스님의 화엄법문으로 막을 내린다.

도문·인환·암도·월파 스님 등 원로의원은 물론 해남(통도사 율주)·법산(동국대 명예교수)·종범(전 중앙승가대 총

12월 3일~31일 설법전서

선·교·율 대표 선지식인 초청

원명 스님 등 29명 법사로

장)·종진(해인사 율주)·무비(전 교육원장)·혜충(전 포교원장)·지안(고시위원장)·각성(화엄사 회주) 스님 등 우리 시대의 선지식으로 존경받는 법사들이 법좌에 오른다.

통도사는 "화염산림대법회 기간은 매일 같이 불자들이 스님들의 다양한 법문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일 뿐 아니라, <화엄경>을 통달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고 취지를 전했다. (055)382-7182

박경수 부산지사장

통도사 화염산림 대법회 일정

날짜	담당 법사
12월3일(화)	방장 원명 스님(입재법문), 우진 스님(전 통도사 강주)
12월4일(수)	해남 스님(통도사 율주)
12월5일(목)	법산 스님(동국대 명예교수)
12월6일(금)	도문 스님(원로의원)
12월7일(토)	해거 스님(탄허문화재단 이사장)
12월8일(일)	종범 스님(전 중앙승가대 총장)
12월9일(월)	무어 스님(축서사 회주)
12월10일(화)	인환 스님(원로의원)
12월11일(수)	암도 스님(원로의원)
12월12일(목)	지현 스님(송광사 율주)
12월13일(금)	해월 스님(해인사 강주)
12월14일(토)	종진 스님(해인사 율주)
12월15일(일)	무비 스님(전 교육원장)
12월16일(월)	혜충 스님(전 포교원장)
12월17일(화)	수불 스님(범어사 주지)
12월18일(수)	수진 스님(해인정사 주지)
12월19일(목)	용학 스님(해인사 강주)
12월20일(금)	반산 스님(원각사 주지)
12월21일(토)	지안 스님(고시위원장)
12월22일(일)	도일 스님(송광사 율원장)
12월23일(월)	성림 스님(통도사 선덕)
12월24일(화)	현진 스님(통도사 강주)
12월25일(수)	덕문 스님(통도사 율원장)
12월26일(목)	삼산 스님(총법사 주지)
12월27일(금)	유암 스님(송광사 강주)
12월28일(토)	각성 스님(화엄사 회주)
12월29일(일)	월파 스님(원로의원)
12월30일(월)	중선 스님(수도암 감원)
12월31일(화)	원산 스님(통도사 주지)

화랑정신으로 새로운 청년정신 창출한다

운문사 원광화랑연구소 학술대회

청도 운문사(주지 일진)가 신라 화랑정신을 통해 새로운 청년정신 창출에 본격 나섰다. 운문사가 최근 설립한 원광화랑 연구소는 11월 16일 운문사에서 '원광법사와 화랑정신 새천년 청년정신을 꿈꾸다'를 주제로 연구소 개소기념 학술대회를 가졌다.

학술대회에는 동국대 이기동 석좌교수와 운문승가대학 학장 진광 스님, 대구 한의대 박홍식 교수, 일본 츠크바에 니시나 카렌지 박사들이 참석 원광법사와 운문사의 인연, 화랑정신의 일본 전파 경위와 현대적 구현방안 등에 대해 집중 조망했다.

오전 학술대회 입재식에는 조계종 교육원장 현승 스님과 동화사 주지 성문 스님, 운문사 회주 명성 스님 등 200여명과 사부대중이 참여해 연구소 설립과 학술대회를 축하했다.

이날 명성스님은 법어를 통해 "원광법사가 화랑들에게 전한 세속오계는 신라 삼국통일 정신의 밑거름이 되었다"면서 세속오계의 중요성과 불교적 의미를 강조했다.

앞서 원광화랑연구소 소장인 운문사 주지 일진 스님은 인사말에서 "원광법사와 화랑정신에 대한 조망은 우리 청년들의 혼을 일깨우는 동시에 새천년 청년정신의 등불을 점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원광화랑연구소 개소기념으로 열린 학술대회

지난 9월 설립된 원광화랑연구소는 앞으로 원광법사와 화랑정신에 대한 학술조사와 국내외 학술교류, 연구유역 수행 등을 통해 새로운 청년 정신 창출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불교승가연, 108고승 법회

12월11일, 부산KBS홀서

전국 고승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법회가 마련된다. 부산불교승가연합회(이사장 조연, 회장 법민)는 12월 11일 오후1시 KBS 부산홀에서 '전국108고승 불자봉정 사자후 청법 대법회'를 개최한다.

창립 1주년을 맞아 호국안보와 국가경제 발전 및 국민화합을 기원하며 개최하는 이번 행사에는 태고종 종정 혜초 대종사가 증명 대법주로 전국 185개 종단 400여명의 대승스님들과 부산 재부기관장과 3,500여 명이 참석한다고 관계자는 밝혔다.

이날 법회는 삼귀의, 반야심경, 경과보

고, 대화사(이사장 조연), 봉행사(회장 법민), 축사(해남식 부산시장), 법어(태고종 종정 혜초), 호국인왕경 봉독, 불자 봉정으로 진행된다.

법회에 앞서 다채로운 문화행사도 개최된다. 한복페스티벌, 부산불교합창단, 라온제나 오케스트라 공연, 초청가수공연 등이 이어진다. 특별행사로 대형 괘불화와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도 진행된다.

이사장 조연 스님(법연원 종정)은 "부산을 불교 1번지로 수호하기 위해 108명의 고승을 모셔 대법회를 봉행하게 됐다"며 "불자 봉정을 통해 파사현정의 정법정신으로 대한민국을 반석 위에 놓기 위한 법회"라며 많은 불자들의 동참을 권했다. (051)557-1041

박경수 부산지사장

청도시암聯 청도군청 항의 방문

청도시암연합회(회장 연암) 스님들은 11월 18일 지역축제 찬송가 공연으로 물의를 일으킨 청도군청을 항의 방문했다. (본지 967호 11면 기사 참조)

청도시암연합회 소속 스님 30여 명이 이 자리에서 종교편향적 공연을 한 이유를 묻고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스님들은 이 자리에서 "특정 종교를 홍보하는 공연으로 군민 화합이라는 축제를 본래의 취지가 퇴색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이종근 청도군수는 "우려스러운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사과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캠페인

렌즈속 현장 - 도량을 도량답게 가꾸자

소방 설비 사찰 경관 고려해야

겨울이 왔다. 이맘때쯤 되면 산사에서는 화재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스님들이 바빠진다. 바람이 불고 건조하기라도 하면 더욱 더 마음을 졸인다. 불자들이 겨우는 촛불이나 향불은 꺼졌는지, 흑사라도 종무실이나 요사에 겨우는 난방기가 과열되는 않았는지 살피기에 분주하다.

사찰에서의 화재는 어느 계절이라고 마음 놓을 수 없지만 불을 많이 사용하는 겨울철이 아무래도 마음을 놓기 어려운 계절이다. 예전과는 달리 소화용 설비나 다양한 방재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어 그나마 마음의 짐을 덜기는 했지만, 경내가 대부분 목재건물로 채워진 전통사찰의 경우에는 불이 나면 그것을 끄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산사에서는

아직까지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지"는 오래된 포스터의 글귀가 마음에 와 닿는 것이다.

"문화재보호법"에서는 문화재의 화재 예방 및 진화를 위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소방시설과 재난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문화재보호법 제14조 4항). 이에 따라 대부분의 사찰에서는 다양한 경보설비와 소화설비를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화재방지 및 진화를 위한 설비들이 전통사찰의 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설치된다는데 있다. 물론 화재 방지와 진화를 위해 반드시 있어야 할

장소라면 어쩔 수 없겠지만, 조금 떨어져 보이지 않는 장소에 설치해도 무방하거나 그러한 설비를 차폐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더구나 관리하지 않아서 녹이 쓴 것도 있고, 소방설비 근처에 집을 쌓아놓기도 한다.

일본의 사찰에서는 법적으로 일 년에 한 번씩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수시로 경보설비와 소방설비를 점검한다고 한다. 또한 문화재사찰에서 갖추어야 할 화재방지 및 진화를 위한 설비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설비를 설치할 때에는 사찰의 경관을 고려한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소방설비를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눈에 잘 띄지 않고 사찰경관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다.

전통사찰을 화재로부터 보호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그러나 사찰이 오랜 시간동안 형성해온 사찰경관 역시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해서 화재예방 및 진화용 설비의 설치위치를 정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차폐를 하여 두 가지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겠 **홍광표(동국대 조경학과 교수, 사찰조경연구소장)**



화재시 진화를 위해 설치한 물대포가 사찰의 경관을 해친다. 또한 실제상황에서 필요한 철저한 관리도 요구된다. 경상남도 7사찰

불교종합쇼핑몰

붓다북

www.buddhabook.co.kr
02) 953-7181

불교서적 · 명상음반 · 신행용품

